**＜4번째 이야기＞ 구원의 필요와 의미**

◆**대표자가 기도**

◆**나눔**

지금까지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? 구원받지 않고서도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함께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.

◆**말씀을 열어보세요**

요한복음 3:16-17

◆**말씀 알기**

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시간은 구원을 받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구원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. 그렇다면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까요? 그리고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?

**1.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**  
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러나 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아담의 죄는 자손 대대로 이어졌고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“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”(롬 5:12)  
  
 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사람의 전인격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(롬 3:9∼18). 결국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 외의 다른 누군가에 의한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.

**2.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**  
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.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. 구약에는 사람의 구원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구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.  
  
 첫째, 구약은 ‘여자의 후손’에 관한 말씀으로 구원을 암시합니다(창 3:15).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뱀, 즉 사탄을 향해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함은 죄지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.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를 근거로 사람을 참소하던 사탄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.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(약 4:7).  
  
 둘째, 구약은 ‘유월절 어린 양’에 관한 말씀으로 구원을 암시합니다(출 12:21∼24).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. 이때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그들이 사는 집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(벧전 1:18∼19).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.  
  
 셋째, 구약은 ‘놋으로 만든 불뱀’에 관한 말씀으로 구원을 암시합니다(민 21:8∼9).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여정에 지쳐 불평했고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징계하셨습니다. 이를 본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에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. 이 장대에 매달린 놋으로 된 불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. 십자가에 달리사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아 생명을 얻습니다(요 3:14∼15).

**3.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**  
구약에서 예표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의미에 대해 신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  
  
 첫째, 구원은 죄 사함입니다.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습니다.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.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.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(롬 3:25∼26; 골 1:20).  
  
 둘째, 구원은 칭의입니다.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나셨고 아무런 흠도 없이 이 땅에서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.  
 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참여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(롬 1:17, 3:21∼22; 빌 3:9).  
  
 셋째, 구원은 구속(救贖) 입니다. 구속은 본래 노예나 전쟁 포로 등을 값을 지불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려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(고전 7:23). 그 구속의 결과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사망에서 건져졌습니다.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 
  
 넷째, 구원은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.  
 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건져져 새 생명을 얻고 나아가 하늘의 자리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(엡 2:4∼7).

◆**기도 및 중보기도**

1.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합시다.  
2.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.  
3.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.

4.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.

이상의 내용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역예배공과에서 발췌, 추가, 재구성한 것입니다.